

“ 행동하는 사랑 ”

■ 이종윤 원로목사

사도 바울은 감상적인 사랑을 넘어 악과 구별된 진실한 사랑을 로마서 12장에서 가르치고 있다.

〈**형제를 사랑하면**〉(필라스톨게)는 형제사랑(필리아)과 가족사랑(스톨게)의 합성어로 형제를 가족처럼 사랑하라 한다. 그리스도인은 종족, 국적, 직업, 교육, 부가 어떠하든지 한 가족이 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 하는 자니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를 사랑할 지니라.”

〈**존경하기를 먼저하며**〉사랑엔 존경을 빼놓을 수 없다.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높이는 마음이 존경이다. 존경하려면 내가 겸손해야 된다. 존경하되 먼저 하라 한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경심이 사라진 오늘의 우리 사회에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젊은 자는 장로에게 순복하고 교만을 버리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하나님의 자녀들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될 수도 있다. 사랑은 내일로 미루지 말고 즉시 해야 한다. “두고 봅시다” 할 때는 이미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전쟁터의 군인처럼, 수고하는 농부처럼 도와 줄 사람이 많았는데 잠깐 늦추다가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사랑의 수고 없이 다른 기적은 바랄 수 없다. 수치 중 가장 큰 수치는 게으른 생활이다. 부지런한 것이 성도의 삶이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이 말은 성령으로 뜨겁게 끓다는 뜻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젖은 사람은 성령으로 끓게 되어 있다.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무슨 일이든 감당케 된다. 미지근한 것은 주님께서 토해내시겠다 하셨다. 이처럼 사랑엔 열심히 있어야 한다. 주를 섬기는 일은 열심을 품지 않고는 할 수 없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는 것이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소망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임으로 그 소망 때문에 성도는 즐거워한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즐거워했다. 대개 불신자는 과거는 미화하고, 현재는 고통스럽다 하고, 미래는 절망적이라 한다. 그러나 신자는 과거엔 멸망의 자식이었으나, 현재는 감사가 충만하고 미래는 약속을 바라보고 기뻐한다. 전자는 갈수록 태산이지만 후자는 갈수록 희망적이다.

〈**환난 중에 참으며**〉환난을 만날 때 참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환난이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선(구원)을 이루신다 했으니 참을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다. 나는 운동 경기를 실황중계보다 재방송 보기를 좋아하다. 결과를 알고 보는 시청자는 가슴조릴 필요가 없다. 오히려 아슬아슬할 때 더 스릴을 느끼며 그러나 이기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즐길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이루신다.


뒷면으로 계속 ➡

앞면에서 계속


〈**기도에 항상 힘쓰며**〉기도하되 숨을 쉬듯 항상 해야 한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인의 기도와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우리 주님은 “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셨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했다. 해석상 난해 구절이다. 주님은 십자가 죽음을 면해 달라 하신 기도를 하셨나?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수차례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기도는 죽을 지경의 고통에서 건져달라는 기도였다. 그 고통은 “남의 죄를 지시는 고통” 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고통” 이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을 잊기 위한 또는 어떤 방법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하실 만큼 천사가 시중드는 응답의 표시를 받으시고도 다시 우리를 위한 기도를 힘써 하셨다. 이것이 성도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고 기도자의 황금률이다.

-한국장로신문 [제 1584호] 2018년 2월 17일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resider : Deacon Kichan Yoo] [Preacher : Pastor Euichang Kim]
* Call to Worship	John 4:24 Presider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1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Sister Lumie Hwang
Hymn	2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Mark 7:24-30 Preside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5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Presider
Anthem	Congregation
Sermon	"Ideal Discipleship (2)" Pastor
* Hymn	484 (Be Thou My Vision) Congregation
* Benediction	Pastor
* Lord's Prayer Song	635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	

부 목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교육전도사 김은숙 박미라 최승원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교사 강아급주하나,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정, 양재성이현주, 비컷잔(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을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병연김희정, 우상식김경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애녹(인도), 정상진홍성임(팔라우),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타키노동자), 필리몬, 프로산도, 수례시, 수바스, 이경엽,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프, 린룸, 수린존(방글라데시), 김택시, 윤영모, 이금순, 김명림, 김택수(군선교)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Tel.558-1106 / Fax.558-2107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http://www.iseoulchurch.or.kr/

“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자 ”

■ 사43:1-3, 14~21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위대한 재창조 신학입니다. 생명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에게, 마른 해골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서 재창조해주시겠다는 신앙고백입니다. 기독교는 창조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이 창조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은 현재와 미래를 재창조하는 종교입니다.

1. 재창조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무에서 유로 천지 창조하시듯 인간을 고귀하게 창조하셨고, 그리스도의 피로 재창조하셨습니다. 성도는 죽음에서 부활하는 존재, 그리스도의 보혈로 재창조된 고귀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흠으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 품,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이사야 43장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세 번씩이나 언급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은 무엇인가로부터 억압받고 있습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깃들고 불안이 엄습해 옵니까? 창조주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2. 해방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가알’ 하나님은 해방자, ‘여호와 예수아’ 여호와는 구원자입니다.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시 106:10). 창조자 하나님은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구속의 능력자이고, ‘예수아’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죄에서부터 해방시키십니다. 매인 데서 해방시키십니다. 포로된 백성, 울무에 갇힌 자, 지병에 묶인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십니다. 시편 저자는 일찍이 이 진리를 알았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 121: 1-2).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키십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롬 10:9).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쳤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죽음에 정복당하고 말았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인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십니다.

3.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창조주 하나님은 ‘엘 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에스겔 골짜기, 뼈 무덤과 같아 도처에 죽음만 널려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겔 37:5). 죄로 죽었던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므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죽음의 바이러스, 죽음의 화살을 쉬지 않고 날리고 있습니다. 죽음의 화살을 맞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생기를 받아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값없이 주시는 이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맺는 말

슬프고 불행한 과거 옛일에 집착하거나 현실의 아픔과 상처에 매이지 말며 아담이 타락한 옛일을 잊어버리고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를 기대하시므로 큰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십자가의 길은 큰 영광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기력하게 누워 있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 간증하며 전도해야 할 사명자들입니다. 새 길을 주시는 전능하신 엘 사다이 전능의 하나님, 바라 열로히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생명과 능력을 깊이 체험하고 승리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 전재홍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찬 양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조원영 목사	서문석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서명철 목사	임상현 장로
III 오후 2시	장석남 목사	이관규 장로

오후 5시 ·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28:7-9 인 도 자
 찬 송 29(29) 다 함 께
 기 도 김광욱 집사
 성 경 암 3:1-15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큰 요란함과 학대함“ ... 설 교 자
 * 찬 송 274(332)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119:166-168...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2(6).....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58(시 133)...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540(219)...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출 16:4, 14, 31...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만나를 거두는 기쁨“... 전재홍 목사
 * 찬 송 Hymn94(102)...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인도, 설교: 장석남 목사

기 도 남태영 권사
 성 경 막 2:1-12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일어나 가라”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본당 피아니스트: 홍해란,김양원,박수강,김복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설 교 서명철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김현정 11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안효주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 니라 (사 43:21)		
영어예배	예루살렘				지난주 성구			
수요 I 부								
수요 II 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 모 임

1. 사명자대회 본부 모임 / 매주 오후 3시30분 1층 후문

◆ 알 림

1.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5.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사-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9호
에버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사-2시30분
7.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8.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9.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사-2시
11. 금주 수요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p>앞면에서 계속</p> <p>12. 의료 상담 / 이번주 상담은 김동준(내과), 공민호(신경외과) 입니다. 주일 오전 10시10분 - 오전11시까지</p> <p>다음주 상담은 노제현(안과), 김동건(치과) 입니다.</p> <p>1층 서적부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8993-5558</p> <p>13.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p> <p>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310호)</p> <p>* 전화 예약 010-2376-3892</p>
--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836명	217명	224명	1,277명	128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9/16)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9월 16일	헌 금	24,029,600	
"	찬양운영비		765,000
	출 판 비		250,000
	복리후생비		46,000
	교통통신비		10,920
"	차량유지비		238,000
	소모품비		335,290
	수도광열비		230,310
	수선유지비		1,525,600
	식당운영비		2,805,400
	합 계	24,029,600	6,206,520